공주어(null subject) 현상에 대한 연구

최 정 희[1)]

A Study on the Null Subject Phenomenon

Jeong-Hee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ull subject phenomenon which universally occurs in early child language and to explain the phenomenon and grammatical development.

It is proposed that null subjects are licensed by morphological uniformity (Jaeggli and Safir 1989), and identified by several ways: null subjects in languages like Spanish and Italian are identified by rich AGR; null subjects in discourse-oriented languages like Korean and Japanese are identified by Mood or topic; null subjects shown in children learning non-null subject languages like English are identified by topic. Following this proposal, we can explain crosslinguistic difference in the rate of subject drop and null subject/null object asymmetry.

I. 서 론

언어 습득 초기에 아동이 주어가 없는 문장을 발화하는 공주어 현상(null subject phenomenon)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주어를 생략하는 공주어 언

1)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시간강사

어(null subject language)인 스페인어와 이태리어를 습득하는 아동은 다음의 예 (1)에서 보듯이 주어를 생략한다.

(1) a. Vado al cinema stasera. (Italian)
b. Voy al cine esta noshe. (Spanish)
'(I) go to the movies tonight.'
(Hyams 1989, 215)

그런데 영어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공주어 언어(non-null subject language)인데, 아동이 (2)처럼 주어가 없는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 Want more.
Is broken.
(Hyams 1986)

이러한 공주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는 크게 문법 이론(Grammatical theory)과 언어처리 이론(processing theory)이 있다. 문법 이론은 Chomsky (1981)의 원리와 매개변인 이론(principles-and-parameters theory)을 따라서 Hyams(1986)와 Jaeggli와 Safir(1989)와 Hyams와 Wexler(1993)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습득 초기에는 이태리어나 다른 공주어 언어처럼 공주어를 문법적이라고 여기다가, 어느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주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어처리 이론은 Bloom (1990, 1993)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아동은 어른과 똑같은 문법을 가지지만 언어처리의 한계때문에 주어를 탈락시킨다고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언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주어 현상과 언어 발달에 대해 설명력을 지닌 이론을 구축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문법 이론과 언어처리 이론을 소개하고, 다음, 공주어 습득에서 두드러진 특징인 주어 탈락과 목적어 탈락의 비대칭(null subject/null object asymmetry)과 언어간의 주어 탈락 비율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리고 공주어 현상

을 보이는 한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이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여러 언어에 나오는 공주어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한다.

II. 문법 이론과 언어처리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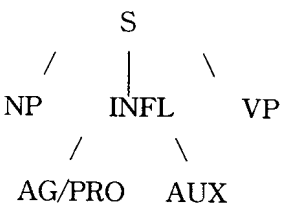
1. 문법 이론

앞 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문법 이론은 Chomsky(1981)의 원리와 매개변인 이론(principles-and-parameter theory)을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습득 초기에는 이태리어나 다른 공주어 언어처럼 공주어를 문법적이라고 여기다가, 어느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주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문법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Hyams(1986)와 Jaeggli와 Safir(1989)의 주장을 주로 다루겠다.

1) AG/PRO 매개변인

Hyams(1986)는 아동의 공주어 현상을 AG/PRO 매개변인으로 설명했다. 이태리어나 스페인어의 경우 인칭과 수의 일치(agreement) 자질이 INFL에 포함되어 있고, (3)에서처럼 AG가 PRO이므로 PRO가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 공주어가 허가된다. 그러나 AG가 PRO가 아니면 공주어는 허가되지 않는다.

(3)



(Hyams 1989, 219)

영어를 배우는 아동은 습득 초기 단계에서는 이태리어나 스페인어처럼 AG를 PRO로 동일시하여 주어를 생략하며, 허사 it와 there이 없고 조동사가 없는 문장을 발화한다. 그러다가 허사 it와 there의 영향으로 어느 시점에서 AG는 PRO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주어를 꼭 사용하게 된다. 모든 아동은 처음에 AG가 PRO라는 매개변인을 고정시켜서 공주어 현상을 보이지만, 영어와 같은 비공주어 언어에서는 input의 영향으로 AG가 PRO가 아니라는 매개변인으로 재고정시킨다.

그러나 이 이론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남긴다. 첫째, 성, 인칭에 따른 일치(agreement)가 없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도 공주어를 허가하는데 AG/PRO 매개변인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는 굴절 체계가 풍부해서 주어가 생략되더라도 다시 회복가능하나, 영어를 습득하는 아동은 주어를 탈락시키면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그 문장내에서는 알 수 없다. 세째, 매개변인이 재고정되면 일관되고 빠르게 주어가 나온다고 Hyams는 보았다. 그러나 O'Grady 등(1989)은 아동이 점차적으로 주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형태론적 일관성(morphological uniformity)

Jaeggli와 Safir(1989)는 AG/PRO매개변인의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형태론적 일관성(morphological uniformity)을 보이는 언어는 공주어를 허락한다는 공주어 매개변인으로 수정했다.

(4) Null Subject Parameter
Null subjects are permitted in all and only languages with morphologically uniform inflectional paradigms.
(Jaeggli와 Safir 1989, 29)

여기서 형태론적 일관성은 한 언어의 굴절체계가 단지 도출형이거나 비도출형만이라면 형태론적으로 일관되었다고 본다. 스페인어는 (5)와 같이 굴절체계가 도출형으로 이루어졌기에 형태론적으로 일관되어 공주어가 허

가된다.

(5)	habl-o	I speak	1s
	habl-as	you(sg.) speak	2s
	habl-a	he/she speaks	3s
	habl-amos	we speak	1pl
	habl-ais	you(pl.) speak	2pl
	habl-an	they speak	3pl

(Jaeggli와 Safir 1989, 27)

영어나 불어의 경우 다음의 예문 (6)과 (7)에서 보듯이, 어간에 굴절어미가 붙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함께 존재하기에 형태론적 일관성을 보이지 않기에 공주어를 허가하지 못한다.

(6)	to talk	infinitive
	talk	present 1s, 2s, 1pl, 2pl, 3pl
	talk-s	present 3s
(7)	[parl-e]	infinitive 'to speak'
	[parl]	imperative 2sg.(=stem)
	[parl]	present 1s, 2s, 3s, 3pl(=stem)
	[parl-õ]	present 1pl
	[parl-e]	present 2pl

그러나 영어나 불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습득 초기 언어에서는 굴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형태론적 일관성을 보이므로 공주어를 허가한다.

Jaeggli와 Safir(1989)는 공주어의 허가(licensing)와 확인(identification)을 구분했다. 공주어는 형태론적 일관성에 의해 허가되지만, 다른 수단에 의해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태리어와 같은 언어는 풍부한 AGR에 의해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일본어와 중국어와 같은 언어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론적으로 일관되었기에 공주어가

허가되지만, 담화상의 화제(discourse topic)에 의해 생략된 주어를 확인할 수 있다.

(8) 일본어

yom-ru	'read-present'
yom-ta	-past
yom-eba	-conditional
yom-oo	-imperative
yuom-itai	-volitional
yom-are	-passive
yom-ase	-causative

중국어

xihuan	'like'

(Jaeggli와 Safir 1989, 29)

습득 초기의 영어는 굴절이 붙지 않아 형태론적으로 일관성을 보여서 주어 탈락이 허가되지만,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담화상의 화제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형태론적 일관성을 보이면 공주어를 허가하는가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Jaeggli와 Safir(1989, 41)도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인정한다.

(9) Unfortunately we do not have any answer to the natural question that arises; we have no explanation to offer as to why (4) should be a property of natural languages.

2. 언어처리 이론

Bloom(1990)은 먼저 언급한 문법 이론과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한다. 그의 언어처리 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어른과 동일한 문법을 가지지

만 이런 지식을 사용할 때 언어처리의 어려움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긴 발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주어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Bloom(1990, 495)은 아동의 경우 주어 없는 문장이 주어가 있는 문장보다 더 긴 동사구를 가질 것이라는 동사구 길이 가설(VP length hypothesis)을 세운다. 실제로 주어가 일반명사인 경우 동사구가 제일 짧고, 주어가 대명사이면 일반명사보다 동사구가 조금 길고, 주어가 생략된 경우 동사구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것은 언어처리 제약(processing constraint)으로 주어가 생략된다는 언어처리 이론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Hyams와 Wexler(1993, 440)는 Bloom의 동사구 길이 효과가 이태리어를 말하는 성인에게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언어처리의 한계로 동사구 길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Bloom의 설명은 이태리어 성인의 동사구 길이 효과에는 적절치 못하다.

또 신희재와 채현순(1990, 45)이 조사한 한국인 아동 M(2;11)과 H(2;11)의 동사구 평균 길이를 보면 주어문이 공주어문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어를 습득하는 아동에게는 Bloom의 동사구 길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Bloom의 언어처리 이론을 가장 뒷받침해주던 동사구 길이 가설이 거부되므로 언어처리 이론의 설명력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문법 이론으로 공주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3. 공주어 현상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1) 언어간의 주어 탈락 비율의 차이

Valian(1991)은 이태리어를 말하는 아동은 70%정도 주어를 생략하는 반면,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은 약 30%정도 주어를 탈락시킨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Valian은 이태리어 아동은 pro-탈락의 문법적인 과정으로 주어를 생략하고, 영어 아동은 수행 제한(performance constraint)으로 주어를 탈락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법적 탈락과 수행 제한이 70%와 30%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Hyams와 Wexler(1993, 431)에 의하면, 이태리어를 말하는 아동은 pro-탈락 문법을 가지고, 영어 아동은 화제-탈락 문법(topic-drop grammar)을 가진다. 이태리어는 풍부한 AGR을 가지고 있기에 공주어가 가능하지만, 영어의 경우 모든 문장이 적절한 주어 화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 탈락의 기회가 더 적다.

그런데 공주어 언어이지만 스페인어나 이태리어와는 다른 한국어의 경우 Kim(1992, 134)의 분석결과 약 50%정도 주어를 탈락한다. 이렇게 언어마다 다른 비율로 주어를 탈락시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 주어와 목적어 탈락의 비대칭(null subject/object asymmetry)

위에서 언어 습득 초기단계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주어 생략 비율은 목적어를 탈락하는 비율보다 훨씬 많아 주어와 목적어 탈락에 있어서의 비대칭을 이룬다. 표 1에서 보면 Adam이라는 아동은 1단계에서는 주어를 55% 탈락하고 2단계에서는 29% 탈락시키며, 목적어를 처음에는 7% 탈락시키고 나중에는 11% 탈락시킨다. Eve의 경우도 주어를 단계별로 39%, 15% 탈락하고 목적어를 13%, 4% 탈락시킨다.

표 1 주어와 목적어 탈락 비율

	Adam	Eve	total
PERIOD 1			
subjects	55%	39%	48%
objects	7%	13%	9%
PERIOD 2			
subjects	29%	15%	22%
objects	11%	4%	8%

(Hyams와 Wexler 1993, 426)

Wang 등(1992)은 중국어를 말하는 아동이 주어나 목적어 화제를 탈락시킨다는 사실을 관찰했는데 이것을 따라서 Hyams와 Wexler(1993)는 영어의 경우도 화제 탈락(topic drop)으로 주어의 생략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중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주어만 탈락시키는 것을 설명하려고, 생략되기 위해서는 동사구의 영향권(scope)밖에 있어야 한다는 Diesing(1988)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즉 주어는 동사구밖에 있어서 생략 가능하지만, 목적어는 동사구밖으로 나오려면 화제화(topicalization)를 겪어야 되는데 화제화를 습득하지 않아서 생략할 수 없다.

주어-목적어 비대칭에 대해 Bloom(1993, 50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주어는 구정보(old information)인데 반해 목적어는 신정보(new information)이므로 언어처리 한계에 의해 주어를 생략한다. 두 번째 가능성은 언어처리에 있어 가장 무거운 것을 가장 마지막에 둔다는 것이다. Bloom은 주어와 목적어는 화용과 언어처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에 비대칭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III. 한국어의 공주어 현상과 언어 발달

1. 담화론적 측면

이 장에서는 특히 한국어의 공주어 현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어른들도 주어를 생략하며 아동의 발화에서도 역시 주어가 생략된다. 2살 6개월된 아동 재균의 발화 중 다음과 같은 주어 없는 문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0) a. (고양이가) 까까 사러 안가네!
b. (아저씨가) 이거 빼 뺀대요, 이거 뺀대요, 이거.

괄호 속의 주어는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문맥상 의미를 지닌다.

신희재와 채현순(1990)은 구정보(old information)의 경우 공주어로 신정보(new information)의 경우는 주어를 사용하는 적절한 담화전략을 아동들

이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가진다. 그러한 예를 아동 재균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11) 엄마: 음, 고양이는 뭐하고 있어?
재균: 자고 있어.

한국어를 말하는 아동은 구정보를 나타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구정보는 생략되더라도 회복가능하기 때문이다.

Cho(1994)에서도 생략된 주어의 91%가 구정보를 나타냈고, 표현된 주어의 70%가 신정보를 나타냈다. 표현된 목적어의 87%가 신정보를, 생략된 목적어의 85%가 구정보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러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담화론적 지식만으로는 한국어의 공주어현상을 설명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Mood에 대해 살펴보겠다.

2. Mood

Cho(1994, 456)는 수와 성, 인칭에 대한 굴절을 가지고 있어 공주어가 허가되는 이태리어나 스페인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mood에 대해 굴절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 (12)에서처럼, 한국어는 풍부한 mood를 가지고 있다.

(12)

놀	어간	
놀-자	-청유,	1pl
놀-아라	-명령	2sg/pl
놀-더라	-보고형	2sg/pl, 3sg/pl
놀-대	-보고형	2sg/pl, 3sg/pl

Cho는 mood 형태소에 의해 공주어가 허가되며, mood categories에 관한 한 한국어는 형태론적으로 일관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Kim(1992, 123)은 한국어가 다음의 경우에서 보듯이 형태론적으

로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13) 가 어간
가-면 -조건
가-자 -청유형
가 -서술
가 -명령
가 -의문

이것에 대해 Cho는 모음조화가 기저표시(underlying representation)인 /가-아/에 적용되어 첫번째 모음 /아/가 탈락하여 [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한국어는 형태론적 일관성을 보이는 언어라고 한다.

(14) /가-아/
-서술/명령/의문
ㄱ-아
[가]

인칭과 수에 일치하는 이태리어나 스페인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주어와 mood가 일치를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15) a. *영희-가 놀-자.
3sg-주격 -청유형(1인칭 복수)
b. *네-가 놀-대
2sg -주격 -보고형(3인칭 단,복수)

그래서 Cho(1994, 459)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제안했다.

(16) Subject Pro Constraint (optional)
Drop nominals if predictable from the mood categories.

Cho가 살펴보았듯이 한국어는 형태론적 일관성을 보이는 언어이므로 공주어가 허가된다. 생략된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mood나 화제에 의존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11)과 같은 아동의 발화 '자고 있어'에서 mood category에 의해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기에 담화상의 지식을 활용하여 화제인 '고양이'가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공주어 현상에 대한 고찰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공주어의 허가와 확인을 표 2를 통해 보자.

표 2.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공주어의 허가와 확인

		허가(licensing)	확인(identification)
공주어 언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형태론적 일관성 보임	풍부한 AGR
	한국어, 일본어	형태론적 일관성 보임	mood/화제
비공주어 언어	습득 초기 문법	형태론적 일관성 보임	화제
	성인 문법	형태론적 일관성 보이지 않음	

우선 Jaeggli와 Safir(1989)의 형태론적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형태론적 일관성을 보이면 공주어가 허가되고 형태론적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면 공주어가 허가되지 않는다. 비공주어 언어라도 습득 초기에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습득 초기에는 굴절이 붙지 않아서 형태론적으로 일관되었으므로 공주어가 허가된다고 설명한다.

공주어가 허가되지만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스페인어나 이태리어어는 풍부한 AGR에 의해 문장내에서 생략된 주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는 mood에 의해 생략된 주어를 알수 있지만 생략된 주어가 어느 것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기에 담화상

의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비공주어 언어를 배우는 아동이 습득 초기에 보이는 공주어는 화제에 의해 생략된 주어를 확인해야 한다.

이제 언어간의 주어 탈락 비율의 차이와 주어/목적어 탈락의 비대칭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 우선, 영어와 이태리어의 주어 탈락 비율(각각 30%, 70%)의 차이에 대해, 2세 전후의 어린이는 모두 화제를 탈락시키는데 이태리어 어린이는 주어가 생략되더라도 문장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AGR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어 탈락 비율이 훨씬 높다.

한국어 아동도 담화상의 지식을 활용하여 화제를 탈락시키지만 mood에 의해 생략된 주어를 회복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때 mood는 AGR처럼 모든 경우에 생략된 것을 확인해 줄 수 없으므로 주어 탈락 비율(50%)이 이태리어보다는 낮다.

주어 탈락이 목적어 탈락보다 현저하게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한다. 영어에서 보이는 주어 탈락과 목적어 탈락의 비대칭성[2]은 Hyams와 Wexler (1993)의 주장을 따라서 주어는 동사구밖에 있으므로 생략되지만 목적어는 화제화를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략될 수 없다고 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에도 주어 탈락과 목적어 탈락 비율(Cho 1994에 의하면 각각 37%, 25%)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구정보와 신정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보통 구정보가 먼저 나오고 신정보가 나중에 나오며 구정보는 생략되기 쉽기에 평상어순에서 먼저 나오는 주어가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초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인 공주어 현상을 지적하고, Hyams와 Wexler(1993)의 문법 이론과

2) Rizzi(1994)는 영어를 배우는 아동의 주어 탈락은 복원가능한 화제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diary-drop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리고 공범주의 종류는 null constant라고 주장하며 그것은 주절의 CP-Spec이나 C-Projection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 IP의 Spec자리에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는 나올 수 없으므로 주어와 목적어 탈락의 비대칭이 일어난다고 본다.

Bloom(1993)의 언어처리 이론 중 문법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Jaeggli와 Safir의 형태론적 일관성을 이용하여, 형태론적 일관성을 보이면 공주어가 허가되고, 형태론적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면 공주어가 허가되지 않는다. 비공주어 언어라도 습득 초기에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습득 초기에는 굴절이 붙지 않아서 형태론적으로 일관되었으므로 공주어가 허가된다고 설명한다. 공주어의 허가와는 별도로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스페인어나 이태리어는 풍부한 AGR에 의해 문장내에서 생략된 주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는 mood나 화제에 의해 생략된 주어를 알 수 있다. 비공주어 언어를 배우는 아동이 습득 초기에 보이는 공주어는 화제에 의해 생략된 주어를 확인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공주어 현상을 개별 언어의 특성으로 돌리지 않고 '형태론적 일관성'이라는 개념하에 통합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서 남는다. 형태론적 일관성을 보이면 공주어가 허가된다는 것이 왜 자연 언어의 속성인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어와 같은 비공주어 언어 습득 초기에 보이는 공주어 현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신희재, 채현순. 1990. 한국아동의 Pro-탈락 습득. 한국인지과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2-48.

Bloom, Paul. 1990. Subjectless sentences in child language. *Linguistic Inquiry* 21: 491-504.

Bloom, Paul. 1993. Grammatical continuity in language development: The case of subjectless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24: 721-734.

Cho, Sook-Whan. 1994. The grammar of null arguments in early child

Korean. *Korean Linguistics Today*. Stanford University.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Hyams, Nina. 1986.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theory of parameter*. Reidel, Dordrecht.

Hyams, Nina. 1989. The null subject parameter in language acquisition, in Osvaldo Jaeggli and Kenneth J. Safir, eds., *The null subject parameter*.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215-238.

Hyams, Nina, and Kenneth Wexler. 1993. On the grammatical basis of null subjects in child language. *Linguistic Inquiry* 24: 421-459.

Jaeggli, Osvaldo and Kenneth J. Safir. 1989. The null subject parameter and parametric theory, in Osvaldo Jaeggli and Kenneth J. Safir, eds., *The null subject parameter*.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1-44.

Kim, Young-Joo. 1992. The acquisition of Korean, in Dan I. Slobin, 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O'Grady, William, Ann Peters, and Deborah Masterson, 1989. The transition from optional to required subjects. *Journal of Child Language* 16: 512-529.

Rizzi, Luigi. 1994. Early null subjects and root null subjects, in Lust et al., eds., *Syntactic theory and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Valian, Virginia. 1991. Syntactic subjects in the early speech of American and Italian children. *Cognition* 40.

Wang, Qi, Diane Lillo-Martin, Catherine T. Best, and Andrea Levitt. 1992. Null subject vs. null object: Some evidence from the acquisition of Chinese and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2: 221-254.

KOREA MARITIME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